

# 자 문 의 건 서

· 안전 : '위례지구 A1-10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축물 색채계획을 고려한 포장 통합디자인

## 자 문 내 용

건축물 색채와의 통일성, 포장패턴의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당초 설계안에 비해 개선안의 포장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됨.

**색상;** 당초 설계안의 오렌지 계열 포장은 (보도부분) 분홍빛이 상당히 강함. 이는 건물의 노란 계열 색상과 같은 "난색계열" 이기는 하나 함께 병치하였을 때의 조화와 통일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개선안의 브라운 계열은 노란 계열과 더 잘 어울릴뿐더러 채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느 색상과 병치해도 크게 부조화를 이룰 것 같지는 않음.

**포장패턴;** 당초 설계안의 포장 패턴은 대조를 이루는 다양한 색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주변에 계획된 격자 패턴은 아파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음.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입면은 수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보여짐. 이에 격자형의 포장패턴은 전체적인 시각적 질서를 거스를 것이라 생각됨.

반면 개선안의 경우 패턴이 복잡하지 않고 소수의 색채를 반복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인식되며, 수직성이 강조된 건물의 입면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 생각됨. 생활가로의 그라데이션 패턴은 흥미로우며 보도와 차도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음. 다만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색상들이 너무 과한 대조를 이룬다면 길이 굴곡져 보일 수도 있을 것임. 비상차로 중 화이트와 브라운색상 네모 무늬가 겹쳐있는 패턴의 경우, 화이트 색상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음.

**포장 계획;** 당초 설계안은 다른 포장패턴으로 구획되는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작고, 대조를 이루는 포장 패턴과 색상을 병치하여, 전체적인 공간을 작고 복잡하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됨. 반면 개선안은 공간을 크게 구획하고, 각각의 패턴과 색상이 시각적으로 크게 대조를 이루지 않아 공간을 크게 보이게 하며, 구획된 공간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자아냄.

2017년 5월 24일

위원 : 윤희연 (인)